

# 한국불교 최초 도래지 명성 잇는다

### 김해불교신도연합회 창립, 조유식 초대회장 취임

김해 첫 독립 신도단체 '김해불교신도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김해불교연합신도회(회장 조유식)는 창립기념법회를 9월 2일 김해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김해불교연합신도회는 대성(은하사 조실)·정여(범어사 주지)·도허(단양 방곡사 회주)·금강(대법륜사 회주) 스님과 강북회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영 전 김해시의회의장, 선진구 전국불교신도회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지도법사단과 자문위원, 이사 등 139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신도회 창립의 주역인 조유식 초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김해의 선출직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등 30여 공직자 가운데 초하루와 보름 등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김해시민이 50만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김해불교계는 계속 묵언수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이어 "부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살펴가며, 한국불교 최초 도래지인 김해불교의 외호세력이자 흥법단체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길(부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이웃도시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어오는데 이를 받아줄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자비실천운동을 통해 김해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기업의 대표가 되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 대자대비사상을 실현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삼국시대 가락국이 번성했던 곳으로 인도의 아유타국이던 허왕후와 보옥 선사가 직접



9월 2일 김해불교신도연합회 창립대, 조유식 초대회장(오른쪽)이 취임했다.

불교를 가지고 온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도래지로서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다. 최근 신도시로 조성된 장유 지역에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 증가에 따른 종업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10년 사이 인구가 34만에서 49만으로 15만 명 이상 급증했으며,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해불교계는 늘어난 인구를 대상으로 한 포교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055)332-3310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존자를 찾아서

## '반야심경' 읽으려고 한글 공부 했습니다

###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 초대회장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장(사진)은 18살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다. 다사다난했던 가족사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살아있는 어머니를 두고도 고아처럼 외롭게 성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교가 찾아왔다.

"이른 아침 한 운동장에서 불교 청년회원들로 구성된 조기축구회를 만나서 함께 공을 차게 됐어요. 이때 만난 도반들에게 매료돼 처음 절집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러 부산에 있는 학원까지 다니게 됐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조회장의 삶은 180도 변했다. 복수하기 위해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온갖 무술을 연마하던 거친 주먹은 연꽃 봉우리처럼 곱게 함장을 했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은 남이 아닌 내가 되어, 전생의 업장소멸을 위해 주먹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승가에게 일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스님들께서 이끌어야 할 일을 한날 재가자가 나서서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향후 10년간 교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김해불교의 변영기였던 1980년 초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장의 고군분투로 시가지에 불교회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김해불교시민교양강좌를 74회 개설하고, 어린이·청소년법회와 바라밀교사회, 불교실업인회, 여성자비회 등 10여 개의 실행단체를 설립했다. 방학이면 어김없이 불교학교가 열렸고, 부처님 오신날이면 성대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김해불교계의 터줏대감 격인 승가단체의 굵지 않은 시선

이었다.

"그동안 일선에서 물러나 재가자로서 묵묵히 지켜봤지만 김해시의 성장 속도에 못 미친 채 오히려 불교계만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연간 수십억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대외사업과 시민운동을 전개하지만, 김해불교계는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노인인구 등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립한 동체대비심교와 대자대비의 사상입니다."

이에 조회장은 임기 동안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불교문화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불교계 인재발사를 위한 불교지도자아카데미, 김해불교아카데미도 잇달아 문을 연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생대회, 붓다가족축제 등 흠어진 불심을 결집하기 위한 다채로운 축제도 기획하고 있다.

"불우한 청소년기에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제 마음에는 어느덧 현재의 내 모습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복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법문을 깊이 새겼습니다. 제게 두 번째 삶을 열어준 감사한 불교를 모두에게 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다운 불국토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박지원 기자

## 신도증 발급받아 할인 혜택 받자

### 조계종 멤버십 가맹점 실시 호텔·병원 등에서 할인받아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면 누구나 전국 코모도호텔 최고 40%, 부산대 한방병원 진료비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설립전에서 '신도 멤버십 협약식'을 갖고, 코모도호텔(회장 이영숙, 前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과 부산대 한방병원(원장 이병렬) 간의 협약식을 9월 3일 체결했다.

정여 스님은 "옛날 조상들의 상부상조하던 미덕은 사라졌지만 다양한 멤버십에서 우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익을 위해 선뜻 동참해준 두 불자기업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에 대해 코모도호텔 숙박 이용요금의 40%, 부산대 한방병원 진료비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코모도호텔 부산은 주중과 주말



9월 3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신도 멤버십 협약식'을 개최했다.

구분 없이 연중 객실 이용요금의 40%, 식당 등 업장 20%, 사우나 50% 등의 할인이 적용된다. 단, 코모도호텔 경주의 경우 객실 주중 50%, 주말 30%로 지역별로 할인을의 차등이 있다.

부산대 한방병원은 정상 진료비를 스님 20%, 재가불자 10%씩 각각 할인해준다.

이영숙 코모도호텔회장은 "기업인이기에 이전에 한사람의 불자로서 포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렬 부산대 한방병원장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육체적 건강은 우리 병원에서, 정신적 건강은 불교계에서 전담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계종 멤버십 가맹사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교원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신도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 신도 등록, 10만 교육 훈련, 1만 전문 인력 신도 양성' 1차년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박지원 기자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부산영도시니어클럽 개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해원(이사장 원하)의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부산영도시니어클럽(관장 전현수)이 문을 열었다.

해원은 부산 영성동3가 부산영도시니어클럽에서 9월 9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7월 29일 영도구청과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1일 사무실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 8월 말까지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지하 교육장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영도시니어클럽 1층(118.45㎡)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방아깨비사업단 사업장, 회의실이 있고, 지하 1층(36.80㎡)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장 및 강당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 이사장 원하 스님은 "근로 능력이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적 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부산의 가장 큰 사찰은 '범어사' 아닌 '만덕사'였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김귀경)은 코모도호텔에서 명사초청강연회를 9월 8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사진)이 단상에 올라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동욱 관장은 "부산의 역사는 1만 5000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됐다. 부산 전역에 고루 분포된 시대대별 유적에서 오늘을 있게 한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며 "우리 불자들이 먼저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부산의 정

신문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통일신라시대에 대규모 사찰 '기비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넓은 폐사지가 많은 불교가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주장했다.

나 관장은 "통일신라시대 부산에서 가장 큰 사찰은 범어사가 아닌 만덕사였다. 범당 지붕의 치미(화재나 액운을 막는 의미의 장신구)를 복원해 경주 황룡사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훗날 조선 후기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를



통해 만덕사의 원래 이름은 '기비사'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작법무)사 전통불교 조계종 부설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각 사찰행사전문)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기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의 내용	요일	시간	특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음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창계(천수바라)	목	4~5시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상 스님 • 속성반 (010-2563-5550) 1. 바라, 작법무, 사물. 2. 사주 명리(성명)학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계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금	5~6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영산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록대제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수 일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수시)
- 입학식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부산 영산재 연수원 (바라.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권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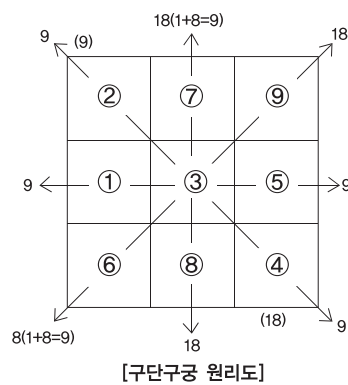
저자: 범화 종현 (정홍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운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강점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으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지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